

때론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우리 주변에 항상 머물러 있지만, 선거철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민주주의'가 바로 그렇다. 이토록 소중한 민주주의 씨앗이 이 땅의 우리에게 피어나던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함께 태어났다. 1919년 4월 11일 전제군주제를 버리고, 민주 공화제를 선택한 위대한 선조들에 의해서다.



1919년 4월 11일
잃어버린 나라를
'임시'로나마 찾은

영광의 그날

사진. 독립기념관

글. 김재원(작가)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강사
- 팟캐스트 '역사공작단' 패널

나라를 잃었지만, 새로운 국가를 꿈꾸다

1910년 8월 29일, 이른바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이후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졌다. 대한제국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었고, 일본제국의 식민지민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는 일제 식민 통치를 인정할 수 없었다. 독립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 무렵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독립운동가 중 몇몇은 조선과 대한제국을 넘어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일본 제국 주위에 대항하고자 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새롭게 만들 그 나라의 모양새였다. 이들은 국왕 중심의 절대 권력이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가를 꿈꿨다. 1917년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박용

만, 조소앙 등의 독립운동가 14명은 중국 상해에서 「대동단결선언」을 작성하면서 본격적인 '국민주권설'을 주장하게 된다. 바로 이 자리에서 독립된 조국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임시정부' 형태의 조직을 만들 것을 최초로 결의하게 된다. 그러던 1919년 3월 1일 거국적인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이후 전 조선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욱 커졌고,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새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조선인들의 열망은 여기저기서 등불처럼 피어 올랐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터졌다. 너무 많은 곳에서 열망이 표출된 것이다.

전국 8도를 넘어, 해외로 변진 '정부' 수립의 열망

주지하다시피 3·1 운동은 1919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식민지 조선 내부를 넘어 국외로 확산이 되는 분위기였다. 독립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과 평양, 중국의 간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미국의 한인사회에서도 독립 만세 시위와 독립선언이 시차를 두고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서 임시정부의 형태를 갖춘 여러 단체가 국내외에서 수립되기 시작했다. 가장 빨랐던 곳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된 대한국민의회였다. 이들은 이미 1919년 2월 조직되어 임시정부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발표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3·1 운동이 일어나자 '대한국민의회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뒤이어 국내에서도 3월 초부터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서 4월 13도 대표자 회의와 국민대회를 통해 조선공화국을 선포했다. 이것이 이른바 '한성정부'다. 비슷한 시기 상해에서는 신한청년당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상해로 건너온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해 '대한민국임시의정원(오늘날의 국회)'을 결성한다. 임시 의정원은 첫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정부 조직과 내각 구성원을 선출해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부르는 4월 11일이었다.



1910년대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안창호



임시정부 창설 이듬해
1920년 1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축하식

갈라진 조직, 하나가 되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상해의 임시의정원은 정부 조직을 체계화하고 한성정부와 대한국민의회 등 다른 임시정부 조직과도 통합을 의결한다. 갈라진 임시정부 조직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1919년 5월 내무총장으로 임명된 안창호를 중심으로 빠르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나의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안창호의 노력으로 인해 상해에서 조직된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를 동시에 해산하고,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새롭게 의회를 구성하는 통합안이 통과되었다. 통합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어느 조직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통합의 움직임에 동참했고, 결국은 하나의 임시정부가 될 수 있었다. 이후 임시정부의 위치는 상해에 둘 것을 결정하고 대한국민의회는 8월 30일 총회를 열어 해산한다. 그렇게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공포해 하나의 통합 임시정부가 발족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9년 만에 민국, 즉 공화국으로서 새로운 국가(비록 임시정부였지만)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 선언이었다. 해방 이후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 사진



1919년 9월 17일 제6차
임시의정원 폐원식 기념 사진